

어머니의 자녀교육열과 가계 특성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the Mother's Educational Aspirations and the Household's Characteristics on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

나영미 · 윤정혜*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Na, Young Mi · Yoon, Jung Hai*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Inha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mother's educational aspirations and household's characteristics have an effect on the likelihood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and the amount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Factor analysis, probit and tobit analyses were used. The main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The mother's educational aspirations for intrinsic values is higher than for extrinsic values. The mother's educational aspirations for extrinsic values, household's assets, and residing in Seoul rather than residing in Incheon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likelihood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However, the child's birth order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likelihood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The mother's educational aspirations for extrinsic values, the mother's education level, household's income, household's assets, and residing in Seoul rather than residing in Incheon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amount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However, the child's birth order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amount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Findings from this study offer several implications. First, the mother's educational aspirations for extrinsic values rather than for intrinsic values has an effect on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Unless the mother's educational aspirations have been changed to pursuing intrinsic values,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cannot be reduced. Second, the polarization of the household's income and assets could bring about the polarization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which can lead to the intergenerational income polarization.

Keywords: mother's educational aspirations,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household characteristics

I. 서론

한국사회에서 1980년대 이후 빠르게 진행된 양적 팽창 위주의 고학력화 경향은 지나친 입시경쟁에 의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문제를 심화시켜 왔다. 우리나라 학생과 성

인의 학원교육비를 포함한 사교육비 규모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사교육비규모의 시계열 추이를 분석한 연구(Nam, 2007a)에 의하면, 2006년 현재 24조원 수준으로 GDP의 2.8% 수준이었다. GDP 대비 사교육비 비율은 과외금지조치가 완화된 1980년대 후반 이

† 이 논문은 나영미의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Corresponding author: Yoon, Jung Hai

Tel: 82-32-860-8112 Fax : 82-32-865-5228

Email: junghai@inha.edu

후 외환위기 시점에 잠시 하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속도가 GDP 증가속도를 초과해왔다(Nam, 2007a). 2007년 이후 통계청은 우리나라 도시와 농촌을 포함하여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비조사를 시작하였다. 2009년 사교육비 총액은 21조 6,259억 원으로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 이래 2009년까지 3년간 전년대비 사교육비 증가율이 연평균 3.35% 증가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통계청, 2008a; 2010).

1990년에서 2008년까지의 개별 도시가계의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비중은 1990년에 17.3%에서 외환위기인 1998년 25.7%, 2008년에 30.9%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다. 반면에 동일한 기간의 엔겔계수는 1990년 24.3%에서 1998년 22.1%, 2008년에 19.6%로 감소하였다. 그 중에서 소비지출 대비 사교육비 비중은 1990년 9.9%, 1998년에는 13.4%, 2008년 24.1%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비 중 사교육비의 비중도 1990년 57.1%에서 1998년 52%, 2008년에는 78.1%에 달하고 있다(통계청, 2008b; 2009). 우리나라 가계에서 교육비는 이제 엔겔계수를 초과하는 비목이 되었으며, 그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교육비임을 알 수 있다.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이 사회·경제적 가치관 및 인식체계와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교육비를 직접 지출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의식과 같은 심리적 특성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어머니에게 맡겨지므로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의 자녀교육열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가계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소비자학 분야에서는 사교육비지출행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행해져 왔다.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의식이 선별가설, 인적자본가설 또는 대리충족에 의한 것인가를 분석한 연구(정영숙, 1996a; 1996b; Park & Yeo, 2000; Yoo & Yoon, 1999), 사교육비지출과 경제적 복지감과 관련된 연구(김시월 1999; Lee, 2002)와 사교육비 부담규모와 가계소비지출과의 관계 및 지출전략을 분석한 연구(Lee, 2005; 2006) 등이 있다. 특히 Lee(2005)는 사교육비문제가 학령기 자녀를 가진 모든 가계에 부담이 되는 구조적 문제임을 실증분석하였다

(Lee, 2005). 교육행정학과 경제학 분야에서는 2000년 이후 주로 가계 특성변수가 사교육비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가 행해졌다(Hong & Sung, 2008; Kim, 2004; Lee, 2004; Nam, 2007b).

한편 교육학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행동의 원인을 한국인의 교육열에 있다고 보고 한국인의 교육열의 정체를 정의하기 위해서 문헌고찰을 통해서 교육열을 본질적 교육열과 도구적 교육열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개념화를 시도하고 상층, 중산층, 근로계층, 농촌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질적 연구를 시행하여 한국인의 교육열이 사회계층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김영화 외, 1993; Kim, H. 1992; Kim, Y. 1992). 그 후 대안학교 학부모의 교육열을 분석한 연구도 행해졌다(Kim, 2002).

사교육비지출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사교육비 지출의 규모의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교육비는 학부모들이 등록금과 같은 공교육비와 같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목이 아니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가계가 있을 수 있고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는 가계도 있을 수 있다. 2000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가계의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에 관한 Lee(2002)의 연구에 의하면, “2000년 현재 사교육비지출 상위 30%로부터 지출되는 사교육비는 전체 사교육비 지출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사교육비지출의 지니계수는 0.647로서 엄청난 불평등”(Lee, 2002)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여건 때문에 사교육을 하고 지출할 수 없는 가계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교육비의 지출규모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전에 사교육비의 지출여부의 영향요인을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

이 연구는 서울과 인천에 거주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가진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자녀교육열과 가계 특성이 사교육비의 지출여부와 사교육비의 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려고 한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1. 어머니의 자녀교육열

1) 교육열의 개념

어머니의 자녀교육열은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중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Kim(1992)은 한국사회의 교육열을 “학부모의 자녀에 관한 특정한 관념과 행위”(Kim, Y. 1992)로 간주하였다. 교육열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인 개념화를 시도한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행한 “한국인의 교육열 연구”이다(김영화 외, 1993). 이 연구는 자녀교육열을 “교육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열망과 실제로 교육을 위해 투입하는 행위”(김영화 외, 1993)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교육열을 목적에 따라 ‘도구적 교육열’과 인격과 교양이나 능력개발과 같은 ‘본질적 교육열’의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도구적 교육열은 “출세 수단의 획득을 위한 교육열로서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에 도달하기 위하여 더 높고 더 좋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열의를 지칭한다.”(김영화 외, 1993). 본질적 교육열은 “자녀의 성장을 위한 학습기회의 획득을 위한 교육열을 의미하며,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보이는 열의를 지칭한다.”(김영화 외, 1993).

1998년 3월 이후 2002년 상반기까지 지정된 대안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의 교육열을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한 문화기술적 연구에서는 ‘교육열’을 “부모들의 자식사랑에 기반한 자녀교육의 열망 속에서 ‘배움’과 ‘행복’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가치가 학력사회의 사회문화적 구조 속에서 그 추구의 양상이 차별적으로 드러남”을 밝혀내었다(Kim, 2002). 즉 “주류교육체제의 학부모들은 ‘교육열’을 ‘학력열’로 발산하는 부정적 관행을 보인다면, 대안학교 학부모들은 구조에 순응하기보다는 모순을 간파하고 저항하면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Kim, 2002)고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도구적 교육열을 ‘출세의 수단,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경쟁과 사회적 성공의 수단, 부모의 체면 유지 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자녀에게 더 높고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열의’로 정의하고, 본질적 교육열을 ‘자녀의 성장을 위한 학습기회의 획득을 위한 목적으로 교육을 통해 자녀에게 지적육구와 자아실현의 육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열의’로 정의하기로 한다.

2) 어머니의 교육열 관련 연구

부모의 자녀교육의 목적을 1996년 사회조사 결과에서 보면, ‘좋은 직장’이 37.9%로 가장 높았으며, ‘소질개발’ 37.3%, ‘결혼승진에 차별이 있어서’ 11.5%, ‘인격이나 교양을 쌓으려고’ 9.0%, ‘주위의 기대’ 3.9%이었다. 즉 자

녀의 직업을 갖거나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한 도구적인 자녀교육 목적이 49.5% 정도로 나타났다(통계청, 1998). 통계청(2008c)의 2008년 사회조사의 ‘학생이 기대하는 교육 목적’을 보면, 도구적 성격은 더 뚜렷해지고 있다. 즉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가 49.0%로 가장 높았으며, ‘소질개발’이 35.4%, ‘학력을 차별하는 사회분위기 때문’이 11.4%, ‘주위의 기대’가 2.1%이었으며 ‘인격이나 교양을 쌓기 위해’가 2.0%이었다. 좋은 직업을 갖거나 학력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한 교육 목적이 60.4%로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통계청, 2008c).

우리나라 가계의 높은 사교육비 지출은 높은 교육열이 원인이라는 점이 몇몇 연구에서 논의되어 왔다(김영화 외, 1993; Kim, H., 1992). 부산지역 중산층 학부모를 대상으로 1989년 9월부터 2년간 문화기술적 방법으로 학부모 문화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부산 지역의 학부모들에게 “자신을 잘 키우는 일”은 자식이 공부를 잘 하여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으며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신념은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부산을 떠나 서울로 진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서울의 일류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다(Kim, H., 1992). 학부모의 교육열의 실상을 심층면담을 통한 김영화 외(1993)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육열은 모든 계층의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은 비슷하게 높게 나타나지만 실제로 표출되는 양상은 사회계층별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김영화 외, 1993). 즉 상층의 학부모는 자녀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높아,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석박사 학위 취득과 유학까지 고려하며, 경제적 가치보다 문화적 가치를 더 중요한 학력의 효용으로 보았다. 중산층의 학부모는 자녀를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한 강박관념적 양상”(김영화 외, 1993)을 보였으며 자녀의 대학입학을 “부모 자신”의 “인생에 성공한 것”(김영화 외, 1993)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근로계층의 학부모는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 막연한 기대일 뿐이었으며 대학진학을 쉽게 포기하고 실업계 진학을 고려하는데 이것은 “학력이 보장할 고용의 안정성과 경제적 효용 때문인 것”(김영화 외, 1993)으로 보았다. 농촌의 학부모의 기대는 자녀가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학교성적이 중위권에 들지 못 하지만 체육 특기가 있으면 체육특기자로 대학 입학하거나 농업계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고, 성적이 좋으면 “전문대에만 합격해줘도 큰 다행으로 여긴다.”(김영화 외, 1993).

2. 가계 특성과 사교육비 지출

1) 자녀관련 변수

자녀관련 변수로는 자녀의 성별과 자녀의 출생순위 등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노동패널 5차(2002)년도 자료 중 0세에서 고등학생 1,966가구를 대상으로 Tobit 분석과 OLS 분석을 한 Lee(2004)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별은 사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자녀의 출생순위가 빠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즉 한국의 부모는 제한된 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장남 또는 장녀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고 있었다(Lee, 2004). Nam(2007b)은 “한국 사회에 아직도 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가”를 밝히기 위해 2004년 한국 교육고용패널조사 중·고생 5,000가구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하였다. 자녀의 성별은 사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Nam, 2007b).

2) 학부모관련 변수

학부모관련 변수로는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유무와 아버지의 직업계층 등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ong과 Sung(2008)은 통계청의 ‘2007 사교육비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초·중·고 학부모 34,000명을 대상으로 연령을 더미변수로 투입하여 OLS와 Tobit 분석을 하였다. 어머니의 연령이 40-50대일 때 사교육비 지출이 유의하게 가장 높았다(Hong & Sung, 2008). 그러나 한국노동패널 3차(2000)년도 자료의 1,950가구를 대상으로 연령을 연속변수로 투입하여 중회귀분석한 Lee(2002)의 연구와 Nam(2007b)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Lee, 2002; Nam, 2007b).

Becker(1981)의 자녀교육의 질과 양의 상호작용 이론에 의하면, “교육을 많이 받은 어머니일수록 더 적은 수의 자녀를 가지므로 더 높은 질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자녀의 교육과 기타 훈련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Becker, 1981).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사교육비 지출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나라의 여러 실증 연구에서 볼 수 있다. 정영숙(1996a; 1996b)은 대구 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의 영향요인을 회귀분석하여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밝혔다(정영숙, 1996a;

1996b). Park과 Yeo(2000)도 ‘1997년 한국소비자보호원 사교육 지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5,004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실증하였다(Park & Yeo, 2000). Kim(2004)은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초·중·고교 학부모 5,178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지출 결정 변인 구조 분석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사교육비 지출에 정적 효과가 있음을 실증하였다(Kim, 2004). Nam(2007b)도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사교육비 규모에 정적 효과가 있음을 실증하였다(Nam, 2007b). 그러나 Hong과 Sung(2008)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사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효과가 없었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사교육비 지출에 정적 효과를 보였다(Hong & Sung, 2008). Lee(2006)가 2002년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연구에서는 과도한 사교육비를 부담하는 가계는 가구주 학력이 높은 가계들이었다(Lee, 2006).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자녀의 교육비 지출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업주부의 가계에서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이 높으며 사교육비 지출이 더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었다(정영숙, 1996a; Park & Yeo, 2000).

아버지의 직업계층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주된 척도로서 자녀에 대한 투자로서 사교육비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ark과 Yeo(2000)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직업이 사무·전문직 또는 자영업인 경우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기능직인 경우가 그 다음으로 높았고 농·어업인 경우 가장 낮았다(Park & Yeo, 2000). Yoo와 Yoon(1999)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신중간계층보다 근로·무직계층인 경우 사교육비 지출이 더 낮았다(Yoo & Yoon, 1999). Kim(1992)은 아버지의 직업계층에 따른 학부모의 기대교육수준을 심층면담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학부모의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부모들이 자녀가 고등교육을 받도록 하고 싶어 하지만 원하는 고등교육의 유형과 수준을 비교해보면 계층별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Kim, Y., 1992). 즉 근로계층이나 도시하류계층, 농업종사자는 전문대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높으며, 중간계층이나 중상계층은 “고등교육의 대중화 추세 속에서”(Kim, Y., 1992) 자녀가 대학 이후의 교육까지 받기를 원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중중간계층의 기대 교육수준이 신중간계층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Kim, Y., 1992). 이로 미루어 볼 때, 아버지의 직업계층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가계자원관련 변수

가계자원 관련 변수로는 소득과 자산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먼저 소득과 자산관련 변수를 모두 고려하여 실증 분석한 연구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2002년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총소비지출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사교육비 부담으로 보고, 사교육비 부담별 5분위분포를 종속변수로 하여 사교육비 부담의 영향변수를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Model* (SUR 모형)으로 회귀분석한 Lee(2005)의 연구에서는 가계소득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자산보유정도를 반영하는 거처사용 면적이 사교육비 부담 수준이 높은 5분위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는데 이것은 “사교육비 부담과 가계의 자산 보유 수준과의 관계가 간접적으로 나타난 것”(Lee, 2005)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Lee (2006)의 연구에서는 과도한 사교육비를 부담하는 가계는 소득분포 상, 중, 하 계층에 골고루 분포하며 주택을 소유한 가계들로 분석되었다(Lee, 2006).

인천시 일반계 고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Tobit 분석한 Yoo와 Yoon(1999)의 연구에서는 소득과 주거자산의 정적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정영숙(1996b)의 연구에서는 소득과 유동자산의 정적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정영숙, 1996b; Yoo & Yoon, 1999). Park과 Yeo(2000)의 연구에서는 소득의 정적 효과가 유의했으며, 주택소유형태가 자가 일 경우 비자가일 경우보다 사교육비 지출을 더 많이 하였다(Park & Yeo, 2000). 이 경우도 주거자산이 사교육비 지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노동패널 3차(2000)년도 자료를 이용한 Lee(2002)의 연구에서는 월평균소비액, 자산, 부채변수를 모두 투입하여 중회귀분석을 하였는데 자산과 부채변수는 유의하지 않고 월평균소비액만 유의하게 나타났다(Lee, 2002). 여기서 월평균소비액은 소득의 대리 변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다른 사회경제적 변수를 통제하고 소득만을 고려하여 OLS 또는 Tobit 분석을 한 연구결과를 보면, Kim(2004)의 연구에서는 가계수입의 정적 효과가 유의하였으며, Nam(2007b)의 연구에서는 소득의 정적 효과가 유의하였다(Kim, 2004; Nam, 2007b). Hong과 Sung (2008)의 연구에서는 소득구간을 더미변수로 투입하였는데, 소득구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계속 상승하

는 경향을 보였다(Hong & Sung, 2008). 즉 사교육비 지출은 현재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계가 보유한 자산의 양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2002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의 교육정도와 직업지위와 가계소득과 주택소유여부 및 거주 주택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계층을 핵심적 중산층, 주변적 중산층, 비중산층의 3 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도시가계의 사회계층별 소비양식과 영향요인을 분석한 Kim과 Choe(2009)의 연구에서는 핵심적 중산층에서 학원비와 과외비 등이 포함된 보충교육비의 지출비중이 월등히 높은 결과를 파악하였다(Kim & Choe, 2009).

대우경제연구소의 한국가구패널조사 1998년 자료를 이용하여 재무비율로 우리나라 가계재정상태를 평가한 Lee *et al.*(2004)의 연구에서는 서울시거주가구의 실물자산이 광역시 또는 기타지역 거주가구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서울지역의 부동산의 시장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Lee *et al.*, 2004). 따라서 거주지역 변수로 넓은 의미에서는 가계자원변수로 포괄할 수 있다.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은 서울, 수도권, 지방도시, 농촌 등 거주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전국에 걸친 조사자료로 분석한 연구들에 의하면, 서울지역이 중소도시 또는 광역시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ong & Sung, 2008; Kim, 2004; Lee, 2004; Lee, 2002). 또한 1998년 서울과 경기도 성남의 고등학생 학부모 868명을 대상으로 회귀 분석한 김시월(1999)의 연구에서는 경기도 성남에 비해 강남구와 서초구가 가장 사교육비 지출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서울의 동북부와 송파지역이 그 다음으로 높았고 서울의 서북부 지역이 약간 더 높았다(김시월, 1999). 이러한 결과로부터 서울과 지역간 현격한과외비 격차를 파악할 수 있다. Yoon과 Rhee(1994)는 자녀에게 학원 또는 개인지도를 시킨 적이 없거나 자녀를 위해 학습지를 구독한 적이 없는 경우 등을 교육박탈수준 척도로 구성하여 교육박탈수준의 영향 요인을 중산층과 빈곤층으로 구분되는 거주계층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소득과 자산이 모두 영향을 미치며 소득보다는 자산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Yoon & Rhee, 1994).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첫째, 어머니의 자녀교육열(도구적 교육열, 본질적 교육열)과 가계 특성(자녀의 성별·출생순위, 어머니의 연령·교육수준·취업유무, 아버지의 직업계층, 가계소득, 가계자산, 거주지역)은 사교육비 지출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어머니의 자녀교육열(도구적 교육열, 본질적 교육열)과 가계 특성(자녀의 성별·출생순위, 어머니의 연령·교육수준·취업유무, 아버지의 직업계층, 가계소득, 가계자산, 거주지역)은 사교육비 지출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분석모형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의 결정요인 파악하기 위해 두 가지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사교육비 지출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프로빗(Probit)모형으로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사교육비 지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토빗(Tobit)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사교육비 지출여부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프로빗 모형은 Eq. 1과 같다.

$$\log[p/(p-1)]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beta_5 X_5 + \beta_6 X_6 + \beta_7 X_7 + \beta_8 X_8 + \beta_9 X_9 + \beta_{10} X_{10} + \beta_{11} X_{11} + \epsilon \quad (\text{Eq. 1})$$

* p_i : Probability of the Private Educational Spending

다음으로 사교육비 지출규모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토빗 모형은 Eq. 2와 같다.

$$Y^*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beta_5 X_5 + \beta_6 X_6 + \beta_7 X_7 + \beta_8 X_8 + \beta_9 X_9 + \beta_{10} X_{10} + \beta_{11} X_{11} + \epsilon \quad (\text{Eq. 2})$$

$$Y = Y^* \quad \text{if } Y > 0$$

$$Y = 0 \quad \text{if } Y \leq 0$$

Y: Observed Value of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Y^* : Latent Value of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X_1 : Aspiration for extrinsic values

X_2 : Aspiration for intrinsic values

X_3 : Child's gender (Girl)

X_4 : Child's birth order

X_5 : Mother's age

X_6 : Mother's edu

X_7 : Mother's work status(working)

X_8 : HH income

X_9 : HH assets

X_{10} : Residence area(Seoul)

X_{11} : Father's OC(Upper middle)

X_{12} : Father's OC(Old middle)

X_{13} : Father's OC(Blue collar/Unemployed)

3. 자료

조사대상은 서울과 인천에 거주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어머니로 하였다. 자녀를 인문계 고등학생으로 제한한 이유는 사교육은 주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생이 실제로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표집은 지역층화, 각 지역별 표집대상자 비율배분, 표집 학교 및 학급 선정의 3단계로 이루어졌다. 먼저 서울에서는 경제수준별 지역층화방식으로 하고 인천에서는 인천시의 8개구 및 2개 군 중에서 도서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8개구를 전부 선정하고 경제수준별 지역층화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서울에서는 1998년 국세청이 발표한 서울시의 지역별 아파트 평당 기준시가("잠든 부동산 기지개 켜까", 1998)를 참고하여, 서울시의 23개구를 아파트 평당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상, 중상, 중하, 하의 4지역으로 구분한 후 이를 다시 강남과 강북으로 세분화하여 7개의 지역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경제수준별 지역층화를 하였다. 원래는 8개의 지역이 되지만 강북의 경우는 아파트 평당 시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상지역에 속하는 구가 없으므로 7개의 구가 되었다. 다음으로 서울에서는 각 경제수준별 지역의 표집대상자 비율을 정하였다. 각 지역의 규모가 2개구가 포함되는 경우는 1개의 학교에서 표집하며, 4개 이상의 구가 포함되는 집단은 2개의 학교에서 각각 표집하여 지역별 대상자 비율을 배분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 자녀의 성별을 고려하여 비율을 배분하였다. 인천에서는 각 구마다 한 개의 학교를 표집하고 조사대상자 자녀의 성별을 고려하여 남자고등학교 4학교 여자고등학교 4학교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표집 학교 및 학급선정은 각 지역에 속한 학교를 선정한 후 조사협조가 가능한 한 학급을 선정하였다. 이 때 1 학교에서는 1 학급만 표집하였다. 1 학급의 인원인 45-50명을 표집단위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1998년 8월 1일 부터 8월 30일 까지 실시

하였으며 표집설계에서 선정된 서울지역 10학교 인천 8 개 학교, 총 18 개 학교의 선생님들께 요청하여 학생들을 통해 질문지를 배부하며 그들의 어머니들이 질문지에 기입하게 한 후 다시 회수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질문지는 900 부를 배부하여 총 770 부가 회수되었으며, 부실한 질문지를 제외하여 670 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최종적으로 프로빗 분석과 토빗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504 부이었다.

4.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1) 어머니의 자녀교육열 척도

이 연구에서 어머니의 자녀교육열은 김영화 외(1993)의 정의에 따라 “어머니가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열망”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기로 한다(김영화 외, 1993). 도구적 교육열이란 출세의 수단,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경쟁과 사회적 성공의 수단, 부모의 체면유지 등을 얻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자녀에게 더 높고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열의이다. 김영화 외(1993), Kim, S.(1995), Kim, Y.(1995), 한국소비자보호원(1997)의 연구를 참조하여 도구적 교육열 척도를 구성하였다(김영화

외, 1993, Kim, S., 1995, Kim, Y., 1995). 본질적 교육열이란 “자녀의 성장을 위한 학습기회의 획득을 위한 교육열”(김영화 외, 1993)을 의미하며, 교육을 통해 자녀에게 지적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열의이다. Kim(1991), 김영화 외(1993), Lee(1994)의 연구를 참조하여 본질적 교육열 척도를 구성하였다(김영화 외, 1993, Kim, 1991, Lee, 1994). 도구적 교육열과 본질적 교육열은 각 3문항씩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어머니의 교육열 척도 구성을 위해 Varimax 방식으로 요인분석한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으며 도구적 교육열 요인과 본질적 교육열 요인의 요인점수를 프로빗 분석과 토빗 분석의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2) 변수의 측정방법

이 연구에서 사교육비는 학교에 재학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출되는 교재구입비, 급식비 등의 일반사교육비를 제외하고 학생 혹은 학부형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출이 결정되는 학원비, 학습과외비, 예체능 과외비 등의 특수 사교육비를 의미한다(김홍주 외 1998).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측정방법은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Table 1) Factor Analysis of the Mother's Educational Aspirations for Her Child Scale (Varimax)

N=670

The Mother's Educational Aspirations for Her Child	Factor1.	Factor2.	Communality
	Aspiration for Extrinsic Values	Aspiration for Intrinsic Values	
	Factor Loading		
1. I want my child to have more education in order to develop his/her innate talents and aptitudes.	.005	.790	.627
2. I want my child to have more education in order for him/her to mature in mind and character.	.143	.813	.682
3. I want my child to have a college education in order to satisfy his/her desire to learn and realize his/her own dreams.	.260	.720	.586
4. Because a college degree is necessary in order to excel in life, I want my child to have a college education.	.701	.297	.580
5. More education gives my child the opportunity to seek out a more advantageous marriage.	.822	.171	.704
6. I want my child to have more education so that he/she can get good grades and enter a better university which, in turn, will afford the parents a sense of prestige.	.820	.002	.673
Eigen Value	2.643	1.209	
% of Variance	44.051	20.152	
Cumulative %	44.051	64.202	
Cronbach's α	.715	.695	

5. 분석방법

이 연구를 위한 자료 분석은 PASW 18.0과 STATA 11.0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사교육비 지출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자녀교육열과 가계 특성이 사교육비 지출여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프로빗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자녀교육열과 가계 특성이 사교육비 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토빗 분석을 실시하였다.

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Table 3>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78%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조사대상자의 22%는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았다. 월평균

사교육비지출규모는 216,900원이었으며 표준편차가 237,000원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녀교육열 요인점수를 보면, 본질적 교육열이 도구적 교육열보다 더 높았으며 표준편차도 본질적 교육열이 더 작았다. 이것은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본질적 교육열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자녀의 성별은 여자가 47%로 남자보다 약간 적었다. 자녀의 평균 출생순위는 1.54로 대체로 첫째 또는 둘째 자녀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44세, 교육수준은 12.27년으로 고졸이상 수준이었다. 조사대상자의 36% 정도의 어머니가 취업하고 있었으며 64% 정도는 전업주부이었다. 아버지의 직업계층을 보면, 근로·무직 계층이 23%, 구중간계층이 29%, 신중간계층이 34%, 중상계층이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2,225,400원이었으며 평균 가계자산은 274,640,000원 정도이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가계가 56%이었으며 인천에 거주하는 가계는 44%이었다.

(Table 2) Variable Description

Variables(unit)	Variable Description
Probability of Private Education Spending	1. Yes 2. No
Amount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10,000 Korean Won)	Average monthly amount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paid to private correspondence courses, academic tutors, academic institutes, and fine arts institutes
Mother's Educational Aspirati on for Her Child	
Aspirations for Intrinsic Values	Factor score of Factor 1 saved on Factor Analysis in <Table1>
Aspirations for Extrinsic Values	Factor score of Factor 2 saved on Factor Analysis in <Table1>
Household Characteristics	
Child's Gender	0. boy, 1. girl
Child's Birth Order	1. the oldest, 2. the next-to-the-oldest, 3.nth child
Mother's Age	# of years old
Mother's Education Level	# of years receiving formal education
Mother's Work Status	0. non-working 1. working
Father's Occupational Class	1. Blue collar-Unemployed 1. Old middle 0. White collar 1. Upper middle
HH Income (10,000 Korean Won)	Monthly income
HH Assets (1,000,000 Korean Won)	Total amount of financial assets and real estate
Residence Area	0. Incheon, 1. Seoul

IV. 결과와 논의

1. 사교육비 지출여부의 영향 요인

이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22%가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아 사교육비지출여부의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프로빗 모형 분석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프로빗 모형의 적합도 검정을 위한 우도비(Likelihood Ratio) χ^2 값은 86.91로서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 모형은 사교육비 지출여부를 16.2% 설명하였다.

첫째, 가계가 사교육비를 지출할 가능성은 어머니의 자녀교육열 중 도구적 교육열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본질적 교육열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앞의 <Table 4>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어머니의 본질적 교육열은 전반적으로 높지만 사교육비 지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도구적 교육열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이 사교육을 받느냐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가계가 사교육비를 지출할 가능성은 자녀의 출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Selected Variables

N=504

	Mean	S. D.
Probability of Private Educational Spending	0.78	0.42
Amount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21.69	23.77
Mother's Educational Aspirations for Her Child		
Aspirations for Extrinsic Values	11.66	2.31
Aspirations for Intrinsic Values	13.83	1.47
Household Characteristics		
Child's Gender		
Boy (0)		
Girl (1)	0.47	0.50
Child's Birth Order	1.54	0.68
Mother's Age	44.23	3.47
Mother's Edu (yrs)	12.27	2.54
Mother's Work Status		
Non-working (0)		
Working (1)	0.36	0.48
Father's Occupational Class		
Blue Collar Unemployed (1)	0.23	0.42
Old Middle (1)	0.29	0.45
White Collar (0)	0.34	0.47
Upper Middle (1)	0.14	0.35
HH Income (10,000 Korean Won)	222.54	161.59
HH Assets (1,000,000 Korean won)	274.64	509.32
Residence Area		
Incheon (0)		
Seoul (1)	0.56	0.50

생순위가 빠를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자녀의 성별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가능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의 출생순위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첫째 자녀에 대한 기대와 투자성향이 높기 때문에 첫째 자녀일수록 사교육비 지출할 가능성이 더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와 아버지의 직업계층은 사교육비 지출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변수들은 사교육비 지출여부의 통제변수로 기

능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가계가 사교육비를 지출할 가능성은 가계자산이 많을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가계소득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일정수준 이하의 자산보유가계에 대해서는 공교육비 외의 사교육비는 식료품비, 주거비와 같은 필수재가 아니고 선택재이므로 사교육비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인천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서울에 거주할 경우 사교육비 지출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웃의

〈Table 4〉 Probit Analysis of the Probability of Private Educational Spending and Tobit Analysis of the Amount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N=504

	Probability of the Private Educational Spending		Amount of the Private Educational Spending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Mother's Educational Aspirations for Her Child				
Aspirations for Extrinsic Values	0.077*	0.031	1.209*	0.507
Aspirations for Intrinsic Values	0.064	0.047	1.138	0.811
Household Characteristics				
Child's Gender				
Boy (0)				
Girl (1)	0.048	0.137	3.239	2.167
Child's Birth Order	-0.428***	0.119	-6.051**	1.889
Mother's Age				
Mother's Edu (yrs)	0.023	0.024	0.527	0.368
Mother's Work Status	-0.017	0.033	1.018*	0.506
Non-working (0)				
Working (1)	-0.221	0.143	-2.744	2.309
Father's Occupational Class				
Blue Collar-Unemployed (1)				
Old Middle (1)	-0.321	0.190	-5.120	3.130
White Collar (0)	-0.054	0.181	-0.936	2.836
Upper Middle (1)	-0.169	0.256	3.413	3.625
HH Income (10,000 Korean Won)				
HH Assets (1,000,000 Korean Won)	0.001	0.001	0.041***	0.008
Residence area	0.00127**	4.46e-04	0.00566*	0.00218
Incheon (0)				
Seoul (1)	0.510**	0.148	15.456***	2.359
Constant	-1.745	1.141	-57.283	18.214
Log likelihood		-224.765		-1876.817
Likelihood Ratio χ^2		86.91***		198.79***
Pseudo-R ²		0.162		0.050

* $p < .05$ ** $p < .01$ *** $p < .001$

사교육비 지출행태와 사교육 시장 환경의 차이가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사교육비 지출규모의 영향 요인

사교육비 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토빗 모형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모형의 적합도 검정을 위한 우도비(Likelihood Ratio) χ^2 값이 198.79로서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 모형은 사교육비 지출규모를 5.0 % 설명하였다.

첫째, 어머니의 자녀교육열 중 도구적 교육열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본질적 교육열은 사교육비 지출규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앞의 사교육비 지출여부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어머니의 본질적 교육열은 전반적으로 높지만 사교육비 지출규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어머니의 자녀교육열 중에서 사교육비 지출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는 어머니의 도구적 교육열임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학력에 따라 사회경제적 보상이 주어지는 학력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자녀가 높은 직업지위와 고용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목적에서 사교육비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녀의 출생순위가 빠를수록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는 사교육비 지출규모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앞의 사교육비 지출여부의 영향 요인 분석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의 출생순위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첫째 자녀에 대한 기대와 투자성향이 높기 때문에 자녀의 출생순위가 빠를수록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연령, 취업여부와 아버지의 직업계층은 사교육비 지출규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우리나라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학력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사교육비 지출여부의 영향요인에서는 가계소득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가계자산의 효과만 유의하였으나 사교육비 지출규모의 영향요인에서는 가계소득과 가계자산의 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가계소득과 가계자

산이 많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소득과 유동자산 또는 주거자산의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결과(정영숙, 1996b; Park & Yeo, 2000; Yoo & Yoon, 1999)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과 자산 등 가계 자원이 많은 가계가 사교육비 지출을 많이 하고, 가계 자원이 적은 가계는 사교육비 지출을 못 하게 됨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의 양극화를 가져오고 사교육비 지출의 양극화는 궁극적으로 세대간 소득의 양극화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거주지역의 효과는 사교육비 지출여부의 영향요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울인 경우 인천인 경우보다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비 지출여부의 영향 요인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웃의 사교육비 지출행태, 주변의 사교육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V. 결 론

이 연구는 서울과 인천에 거주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가진 어머니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 670부 중에서 최종 504부를 프로빗과 토빗 분석에 사용하여 어머니의 자녀교육열과 가계 특성이 사교육비의 지출여부와 사교육비의 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어머니의 자녀교육열은 본질적 교육열이 도구적 교육열보다 전반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사교육비 지출 여부와 지출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어머니의 도구적 교육열이었다. 즉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학력에 따라 사회경제적 보상이 주어지는 학력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자녀가 높은 직업지위와 고용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목적에서 사교육비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녀의 성별은 사교육비 지출 여부와 지출규모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의 출생순위가 빠를수록 사교육비 지출 가능성과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사교육비 지출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학력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연령, 취업여부와 아버지의 직업계층은 사교육비 지출 여부와 지출규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째, 사교육비 지출여부의 영향요인에서는 가계소득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가계자산의 효과만 유의하였다. 사교육비 지출규모의 영향요인에서는 가계소득과 가계자산의 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즉 일정수준 이하의 자산보유가계에게는 공교육비 외의 사교육비는 식료품비, 주거비와 같은 필수재가 아니고 선택재에 해당하므로 사교육비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서울에 거주할 경우 인천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사교육비 지출 가능성과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웃의 사교육비 지출행태, 주변의 사교육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 몇 가지의 결론은 내릴 수 있다. 첫째,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어머니의 본질적 교육열이 도구적 교육열보다 더 높다. 그러나 학력에 따라 사회경제적 보상이 주어지는 학력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도구적 교육열이 높고 고학력의 어머니들이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 이것은 사교육이 무엇보다 학력경쟁의 사회풍토와 직결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결과이며 우리사회 전체에 학벌주의 인식이 줄어들지 않는 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둘째, 자녀의 출생순위가 첫째자녀 일수록 사교육비를 지출할 확률과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커지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장남과 장녀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이며 이는 가부장적 이념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의 성별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규모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결과는 아들과 딸에 대한 평등의식의 확산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사교육비 지니 계수가 소득의 지니계수의 두 배 정도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자산-저소득 가계는 극심한 교육 박탈상태에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현재 세대의 사교육의 양극화는 궁극적으로 세대간 소득 불평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

넷째, 서울에 거주하는 가계의 자녀가 다른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자녀보다 사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은 서울의 사교육시장이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고도로 전문화되어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웃의 사교육비 지출행태로부터의 영향도 많이 받아 자신의 주변에서 사교육을 시키는 만큼

자신의 자녀에게도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불안한 점이 사교육을 부추기는 측면이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크다.

이상의 결론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어머니의 도구적 교육열은 학력의 사회경제적 가치의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학력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고용관행과 인사관행을 도입할 수 있는 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제도화하여 학력 위주의 사회문화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저자산-저소득 계층의 사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교육제도를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입학과 고용기회에서 저자산-저소득 계층을 배려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교육투자의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비효율적인 경쟁 분위기 속의 불안감에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될 정도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은 가계의 경제적 복지 수준과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비효율적인 경쟁을 자제하는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다음 몇 가지의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서울과 인천시에 거주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였으므로 분석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다. 초등학교생이나 중학생을 둔 가계는 고등학교를 둔 가계보다는 대학진학에 대한 부담이 없으므로 자녀교육열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이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여부와 사교육비 지출규모의 영향요인 중 자녀관련 특성으로 자녀성별, 출생순위와 같은 객관적 특성만을 고려한 제한점이 있다. 자녀의 학업성취열이나 자아존중감과 같은 자녀의 심리적 특성 변수들을 추가하면 사교육비 지출행동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의 자녀교육열 척도는 소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한점이 있다. 교육열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여 정교하게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학력경쟁 사회구조 속에서 창의성과 능력이 중심이 되는 선의의 경쟁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출발점은 어머니들이 도구적 교육열에서 해방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실증분석한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어머니의 자녀교육열, 사교육비 지출, 가계 특성

REFERNECES

- 김광기. (1998. 6, 26). 잠든 부동산 기지개 켜까. **중앙일보**, p. 4.
- 김시월. (1999).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과 경제적 복지감과의 관련성 연구, **소비자학연구**, 10(3), 101-121.
- 김영화, 박현정, 이인호. (1993). 한국인의 교육열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홍주, 한유경, 김현철, 김성은, 김연. (1998). 한국의 교육비 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정영숙. (1996a). 가계의 교육비 지출과 선별가설: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8(1), 1-13.
- 정영숙. (1996b). 가계의 인적자본투자율과 경제적 복지: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7(1), 207-221.
- 통계청. (1998). **1998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 (2008a). **2007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자료검색일 2010, 8. 28. 자료 출처 <http://kostat.go.kr>
- 통계청. (2008b). **가계동향조사: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1990-2008**. 자료검색일 2010, 9. 26. 자료 출처 <http://kosis.kr>
- 통계청. (2008c). **사회조사: 학생의 기대하는 교육수준 및 기대교육목적**. 자료검색일 2010, 10. 3. 자료 출처 <http://kosis.kr>
- 교육과학기술부통계청. (2009). **2008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및 대책**.
- 통계청. (2009). **가계동향조사: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2003-2009**. 자료검색일 2010, 9. 26. 자료 출처 <http://kosis.kr>
- 통계청. (2010). **2009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자료검색일 2010, 8. 28. 자료 출처 <http://kostat.go.kr>
- 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 서울: 한국소비자보호원
- Becker, G. S.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ong, S., & Sung, N. (2008). An Empirical Study on the Korean Household Expenditure for Private Tutoring.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10(3), 183-212.
- Kim, H. (2004). Analyzing the Structure of Variables Affecting on private Tutoring Expense.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2(1), 27-45.
- Kim, H. B. (1992). An Ethnographic Study on the Parents' Involvements in Schooling of Their Children.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J. S. (2002). A Study on the Parents' Education Fever in Alternative Schoo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M. J., & H. C. Choe (2009), The Consumption Styles of Korean Urban Households according to Social Class. *Journal of Consumption Culture*, 12(4), 119-144.
- Kim, S. J. (1995). Middle-class Parents' Way of Thinking about Expending Private Cos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Kim, Y. H. (1992). Social Class and parents' Demand for Children's Educa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0(4), 173-197.
- Kim, Y. K. (1995). Money and Time Investment to Children's Education of Household with High School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Y. O. (1991). (A) Study on Parents' Tendency toward Their Children's High Educational Attain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 Lee, E. W. (2004). Is There Still discrimination Against Daughters in Korea?. *Korean Economic and Business Associatio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22(2), 1-31.
- Lee, H. S., Yang, S. J., Sung, Y. A., & Choe, H. (2004). Evaluating Household Financial Status Using Financial Ratios. *Journal of Consumption Culture*, 7(3), 59-84.
- Lee, J. H. (1994). A Study on the parent's educational supporting activities and purposes for entering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Lee, S. (2002). Inequality of the Household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by Income Classes.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9), 143-159.
- Lee, S. (2005). Household Strategy for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Burden.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7(2), 115-132.
- Lee, S. (2006). The Burden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and Consumption Expenditur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3), 63-76.
- Lee, S. S. (2002).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for Children and Economic Well-being of Household.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7), 211-227.
- Nam, K. (2007a). Time Series Trend of the Scale of Private Supplementary Tutoring.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16(1), 57-79.
- Nam, K. (2007b). Is There Still discrimination Against Daughters in Korea?. *The Korean Economic Review*, 54(2), 119-141.
- Park, M. H., & Yeo, J. S. (2000). Analysis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of Korean Households.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8(12), 189-206.
- Yoo, H. S., & Yoon, J. H. (1999). Factors Which Determine the Amount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of Urban Households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Extra-calss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of General High School.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7(4), 159-171.
- Yoon, J. H., & Rhee, K. C. (1994). Relative Deprivation in Consumption of Urban Poor Households in Korea.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2(3), 27-43.

| 접수일 : 2011. 12. 08.
 | 수정완료일 : 2011. 12. 08.
 | 게재확정일 : 2011. 12. 13.